

## 안철수 “국민에 의한 연대로 대선 승리”

국민의당 대선후보 확정 ... 경선 75% 득표  
“미래 일자리·먹거리 만드는 젊은 대통령”

### ‘선택 2017’ 대선 D-34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4일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3·4·5면>  
국민의당은 이날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 경선을 끝으로 모두 7차례의 지역 순회경선 결과에서 총 누계 득표율 75.01%를 기록한 안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의장은 경선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당내 경선과정에서 거세게 불어온 ‘안풍’(安風)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5·9 장미 대선’을 35일 앞둔 4일 대선 본선 구도가 5자 대결로 압축됐다. 특히 안 후보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야권의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양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5년 만에 다시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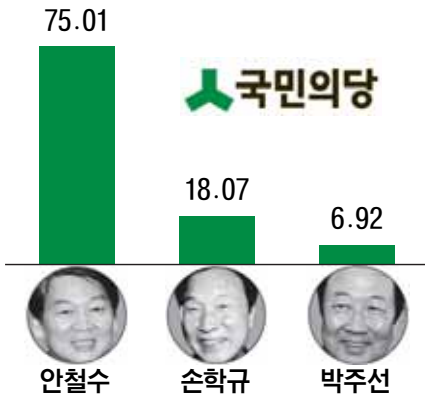
안 후보는 이날 마지막 지역 순회경선인 대전·충남·충북·세종권역 경선에서 총 유효투표수 1만487표 중 8953표, 85.37%의 득표율을 올리며 파죽의 7연승을 올리며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1297표(12.37%), 박주선 국회의장은 237표(2.26%)를 얻는데 그쳤다.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전국 7개 권역의 완전국민경선 투표 80%와 두 곳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안 후보는 전국 7개 권역 완전국민경선 결과 총 누계 유효투표수 18만4184표 가

### ■ 국민의당 대선후보자 경선결과

(투표(80%) + 여론조사(20%), 단위: %)



운데 13만3927표, 누계 득표율 72.71%를 얻었다. 여론조사에서는 84.20%의 지지율을 얻어 최종 결과 75.01%의 득표율로, 투표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파주의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인에 의한 공화적 연대를 하지 않겠다”면서 “탄핵 반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는 더더욱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면서 전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안 적폐세력 후보’를 직접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어 “분열주의와 패권주의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면서 “미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젊은 대통령, 낡은 과거의 틀 부숴버리고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완전국민경선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꽃다발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 ‘5·18 망언’ 전두환 법정에서 다시 세운다

### 5·18기념재단 회고록 분석 ‘사자명예훼손죄’ 책임 추궁

5·18기념재단이 회고록을 통해 5·18 관련 망언을 쏟아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7면>

5·18재단 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 가운데 ‘5·18당시 계엄군 헬기시적이라는 투로 묘사한 부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부 검토를 마친 것을 알렸다.

또 5·18재단은 최근 출간된 전두환·이순자 부부 회고록에 5·18왜곡 및 광주 전남 지역민, 5·18관련 증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겼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4일 밝혔다.

5·18재단은 재단 내 5·18연구소를 중심으로 이순자씨의 자서전과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입수해 허위 사실이 담겼는지, 이로 인한 민·형사적 책임추궁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5·18재단은 오는 6월 5·18 역사왜곡대책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 중

인 강행욱·임태호 변호사와 만나 회고록을 통해 망언과 궤변을 쏟아낸 전두환·이순자 부부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전두환 회고록 중 헬기시적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 피터슨 목사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거짓말쟁이라는 취지로 비난한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돌아가신 조 신부를 대리해 조카 조대영 신부와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행욱 변호사도 최근 “(전두환·이순자) 회고록이 거짓 사실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민형사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광

주일보에 밝혔다.  
한편 5·18 당시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가 주고 받은 비밀 통신기록인 일명 ‘체로키 파일’을 폭로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은 이날 광주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을 5·18 희생자라고 언급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입수해 허위 사실이 담겼는지, 이로 인한 민·형사적 책임추궁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5·18재단은 오는 6월 5·18 역사왜곡대책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 중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세월호 7일 육상 거치 어려울 듯...20일께 재추진

당초 계획했던 이번 소조기(5~8일) 세월호 육상 거치는 힘들어졌다. 세월호의 무게를 잘 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육상 거치는 다음 소조기인 오는 20일께나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은 4일 “오는 7일까지 세월호 육상 거치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목포시항만 취재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예산보다 세월호 무게가 늘면서 육상거치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수습자 수색방안은 거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 무게는 당초 예상했던 1만3460톤보다 훨씬 무거운 1만4592톤이라는 게 선조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날 변경한 모듈 트랜스포터 24개 추가 이송 방식도 물거품이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선도지구’ 등 6대 공약 건의

전남 8개 경제단체, 대선 후보에  
광양만권 LNG 허브 구축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등 포함

전남지역 경제단체들이 제19대 대선 핵심공약으로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 구축 등 6대 공약을 각 정당 대선 후보

들에게 건의했다. 목포상공회의소,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 전남경영지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은행 등 8개 전남지역 경제단체들은 4일 오후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대선공약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전남 서부지역에 해양수산 융·복합단지 조성(목포, 무안, 신안, 진도),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

업 국제선도지구 조성(목포), 해경 제2정비장 유치 등을 통한 수리조선 특화산업 조성(영암) 등 3개, 동부지역에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 구축(광양), 여수 경도 복합 해양관광 중심지대 육성(여수), 대한민국 초경량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순천) 등 3개를 각각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초경량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경량소재 복합연구센터 조성, 경

량소재 양산기술 개발 및 친환경 생산기지 구축 등을, ‘광양만권 LNG 허브 구축’은 동북아 LNG 무역 허브 터미널 조성, LNG 공급선 다원화 및 선박산업 육성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목포에 해양수산·기자재산업 지구, 국제레저산업 지구, 스마트도시 시범지구, 항공복합산업 지구, 신재생에너지산업 지구, 다도해 해상복합관광 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2면으로 계속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이 미래다  
대인시장 부스커피 채살이 대표 ▶18면  
프로야구 KIA 홈 개막전  
엔트리 대폭 변동 분위기 쇄신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기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기(이전 기준)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기(신규 기준)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미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기타 제품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